

ch

17. 생명을 돌보는 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학습목표 ‘-(으)ㄴ/는 만큼’을 사용하여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학습내용 -(으)ㄴ/는 만큼



생각해 봅시다



-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였어요?
-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꾸었어요?



본문

(위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발표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만나 이야기하는 지나와 유리)

- 유리** 지나야! 발표 준비는 잘 되어 가니?
- 지나** 이번 발표 주제가 위인들의 어린 시절이라서 난 얼마 전에 재미있게 읽은 허준의 어린 시절을 좀 찾아봤지.
- 유리** 아! 조선 시대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말이지? 임금님의 병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서도 쓰신 분 아냐?
- 지나** 응, 맞아. 찾아보니까 허준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똑똑했는데, 어느 날 아픈 어머니를 고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의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원이 되기 위해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서 스승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 열심히 했다.
- 유리** 어머!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 지나** 그러게 말야. 그런데 하루는 허준이 약초를 캐어 와서 스승님께 보여 드렸더니, 스승님이 허준을 크게 야단 치셨대.
- 유리** 왜? 허준이 큰 잘못을 했나?
- 지나** 아니, 약초도 병자를 살피는 것만큼 정성껏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야단을 치신 거래.
- 유리** 그렇구나!
- 지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허준은 의술이 생명을 돌보는 일인 만큼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에도 의술을 베풀 때는 항상 정성을 다하게 되었다.

도입 질문

1.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였어요?
2. 어렸을 때 무슨 공부나 놀이를 좋아했어요?
3.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꾸었어요?
4. 그 꿈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5.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6.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자라면서 바뀌었어요?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지나의 발표 주제는 무엇입니까? (답: 위인들의 어린 시절)
- 조선 시대의 유명한 의사로서 임금의 병을 치료하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서를 쓰신 분이 누구입니까? (답: 허준)
- 5) 질문 4)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허준은 왜 의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답: 어렸을 때 한 의원이 아픈 어머니를 고치는 것을 보고)
- 허준이 약초를 캐어 와서 스승님께 보여 드렸을 때 스승님이 왜 허준을 크게 야단 치셨습니까? (답: 약초도 병자를 살피는 것만큼 정성껏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게 한다.
-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 10)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상황(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 교실 상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내용 이해 질문

- (1) 허준은 어렸을 때 의원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의원이 될 결심을 했다.
 (O, X)
답: (O) 허준은 아픈 어머니를 고치는 의원을 보고 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 (2) 허준의 스승님은 의원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O, X)
답: (X) 스승님은 약초도 병자를 살피는 것만큼 정성껏 다루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의원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어휘

발표	presentation, announcement	위인	great man
환자	patient	의학서	medical book
영리하다	to be clever	의원	doctor
머물다	to stay	나르다	to deliver, carry
야단(을) 치다	to scold	의술	medical treatment
깨닫다	to realize	베풀다	to give

It means similar like a doctor, who gives a medical care

발표: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

-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무슨 주제가 좋을까요?
- 오늘 뉴스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영리하다: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

-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해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어요.
- 우리 집 강아지는 멀리에서도 혼자 집을 찾아올 정도로 영리합니다.
- 선생님은 질문에 영리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확장) 똑똑하다: 사리에 밝고 총명하거나 머리가 좋다.

- 똑똑한 사람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 • 어렸을 때는 똑똑하기로 유명했지만 커서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

머물다 : 1.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다.
(‘머무르다’의 줄임말)
2. 어떤 범위나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다.
(‘머무르다’의 줄임말)

- 이번에 서울에서 며칠 정도 머물 생각이세요?
- 계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세요.
- 여행 일정이 짧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확장) 제자리에 머물다: 발전이 없다.

-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 올해 IT 업계의 성장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깨닫다 : 1.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진리 등을 깊이 생각한 끝에 알게
되다.
2. 감각 등을 느끼거나 알게 되다.

- 친구에게 큰 잘못을 했음을 깨닫고 사과의 편지를 썼어요.
-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

베풀다 : 1. 잔치나 연회 등을 벌이다.
2.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혜택을 받게 하다.

-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언젠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문법학습**

-(으)ㄴ/는 만큼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일 때 사용한다.
 '생명을 돌보는 만큼 정성이 필요하다': 생명을 돌보는 것처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① 지위가 높은 만큼 책임감도 큰 법입니다.
- ② 옆집 아주머니께서 주는 만큼 받아 왔어요.
- ③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 ④ 이 체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할 만큼 쉬워요.

상태동사나 '이다'와 '아니다', 동작동사의 과거형에 '-(으)ㄴ 만큼'이 붙고, 동사의 현재형은 '-는 만큼', 미래형이나 추측에는 '-(으)ㄹ 만큼'을 사용한다.

 **문장 만들기**

'-(으)ㄴ/는 만큼'을 사용하여 후행문에 알맞은 선행문 만들기

- (으)ㄴ/는 만큼 몸이 건강해요.
- (으)ㄴ/는 만큼 예뻐요.
- (으)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 (으)ㄴ/는 만큼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 (으)ㄴ/는 만큼 품질도 좋아요.
- (으)ㄴ/는 만큼 재미있게 봤어요.
- (으)ㄴ/는 만큼 길거리에 사람들이 적어요.

 **대화 연습하기**

- 지나:**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이거 들어 드릴게요.
할머니: 아이구, 고맙다 얘야. 얼굴이 예쁜 만큼 마음씨도 참 착하구나.
- 아저씨:** 지호야,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괜찮니?
지호: 네, 이제 운동도 할 만큼 회복됐어요.
- 지나:** 유리야, 지난 주말에 영화 본다고 했었지? 어땠어?
유리: 응, 기대한 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어.
- 지호:** 역시 여행 오기 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오길 잘했어요.
엄마: 그래,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니.



심화학습

1.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음식은 드실 수 있는 만큼만 가져다 드시기 바랍니다.
- 바쁜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2. 앞에 오는 내용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표현하기도 한다.

-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만큼 해외여행은 자제하도록 합시다.
-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날라 영리해서 베풀어요 발표 깨달았습니다

- 1) 우리 아이는 영리해서 세 살 때부터 글을 읽었어요.
- 2) 가시는 곳이 저희 집 근처니까 그 가방 제 차로 날라 드릴게요.
- 3) 작년에 저는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해설 : 1) 우리 아이는 영리해서 세 살 때부터 글을 읽었어요.
 2) 가시는 곳이 저희 집 근처니까 그 가방 제 차로 날라 드릴게요.
 3) 작년에 저는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2. 다음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결과가 / 다하는 / 좋은 / 최선을 / 있을 거예요 / 만큼
 -> 최선을 다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해설 : 최선을 다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 2) 드세요 / 만큼만 / 음식은 / 가져다 / 드실
 -> 음식은 드실 만큼만 가져다 드세요.

해설 : 음식은 드실 만큼만 가져다 드세요.

- 3) 말이 / 보인다는 / 만큼 / 아는 / 있다
 ->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해설 :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1. 어휘 연습

- '나르다, 영리하다, 베풀다, 발표, 깨닫다'로 문장 만들기를 하여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3) '나르다'와 '깨닫다'의 활용형에 주의한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으)ㄴ 만큼]
- 뒤에 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나 수량일 때 사용
- 앞에 오는 내용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기도 함
- 제시된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 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3.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1) (지나와 유리가 지호의 농구 경기를 보고 있다.)

지나: 우리 오빠가 저렇게 농구를 잘하는지 나도 몰랐어.

유리: 그러게. _____

- ① 네 오빠 농구 잘하는 만큼 키도 크구나.
- ② 네 오빠 열심히 연습했을 만큼 잘하는구나.
- ③ **네 오빠 멋있는 만큼 운동도 무척 잘하는구나.**

해설 : ③에서 멋있기도 하고 그만큼 운동도 잘한다는 뜻으로 적절하게 이야기 했으므로 맞는 대답이다. ①은 '네 오빠 키가 큰 만큼 농구도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②는 '네 오빠 열심히 연습한 만큼 잘하는구나'라고 해야 적절하다.

2) (옆집 아주머니와 지호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머니: 며칠 전에 지호 다쳤던데 괜찮아요?

엄마: _____

- ① 네, 병원에 입원할 만큼 회복됐어요.
- ② **네, 이제 학교에 갈 만큼 회복됐어요.**
- ③ 네,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회복됐어요.

해설 : 회복됐다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내용은 '학교에 갈 만큼'이다. 따라서 ②번 대답이 제일 적절하다.

3) (지호와 민이 어느 가게 앞에서 있다.)

지호: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야?

민: _____

- ① 그럼, 값이 비싼 만큼 좋지는 않아.
- ② 그럼, 생각하는 만큼 자주 올 수 있어.
- ③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

해설 :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비유를 해서 표현하고 있는 ③번이 적절한 대답이다.

3. 대화 연습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

•A. 며칠 전에 지호 다쳤던데 괜찮아요?

•B. 네, 이제 학교에 갈 만큼 회복됐어요.

•B'. 걱정한 만큼 많이 안 다쳐서

•금방 괜찮아졌어요.

•문제의 틀린 답을 바르게 고치는 연습도 해 보도록 한다.

•예) 네 오빠 농구 잘하는 만큼 키도 크구나 -> 네 오빠 키가 큰 만큼 농구도 잘하는구나.

과제

대회에 참가하거나 발표를 하기 위해 또는 다른 무슨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준비를 할 때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경험에서 느꼈던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때의 경험을 써 봅시다. 단,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접 경험한 일을 써야 한다.
- '-(으)ㄴ/는 만큼'을 사용해야 한다.
- 문어체('-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고등학교 때 저는 외국어 경시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거라서 두 달쯤 전부터 준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 원고를 쓰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글을 선생님께서 보고 몇 번이나 다시 고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원고를 보고 부드럽게 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몇 시간씩 친구들과 모여서 연습하는 만큼 발음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입 질문

- 대회에 참가하거나 발표를 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 본 경험을 생각해 본다.
- 무엇을 준비했는가?
- 결과가 어땠는가?
- 준비를 할 때 예상했던 것과 실제 경험에서 느꼈던 점이 달랐는가?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직접 경험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함께 풀어봅시다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지나: 할머니, 제가 도와 드릴게요.(예쁘다)

할머니: 그래, 고맙다. 얼굴이 _____ 마음도 착하구나.

2) 엄마: 여보, 오늘 지나가다가 영수를 만났는데요, 정말 키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아빠: 그래요? 나도 얼마 전에 영수가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걸 봤는데,
_____ 많이 컸더라고요.

2. 다음 두 문장을 '-은/는/을 만큼'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하십시오.

<보기>

오래 기다렸다. 영화가 재미있었다.

-> 오래 기다린 만큼 영화가 재미있었어.

1) 열심히 연습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 _____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2) 말을 못 한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

-> _____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3) 모르는 사람이 없다. 유명한 곳이다.

-> _____ 유명한 곳이에요.

4) 운동을 좋아하다. 몸이 건강하다.

-> _____ 몸이 건강하다.



함께 풀어봅시다 (답안지)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지나: 할머니, 제가 도와 드릴게요.(예쁘다)

할머니: 그래, 고맙다. 얼굴이 예쁜 만큼 마음도 착하구나.

2) 엄마: 여보, 오늘 지나가다가 영수를 만났는데요, 정말 키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아빠: 그래요? 나도 얼마 전에 영수가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걸 봤는데, 못 알아볼 만큼 많이 컸더라고요.

2. 다음 두 문장을 '-은/는/을 만큼'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하십시오.

<보기>

오래 기다렸다. 영화가 재미있었다.

-> 오래 기다린 만큼 영화가 재미있었어.

1) 열심히 연습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 열심히 연습한 만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2) 말을 못 한다.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

-> 말을 못 할 만큼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3) 모르는 사람이 없다. 유명한 곳이다.

->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곳이에요.

4) 운동을 좋아하다. 몸이 건강하다.

-> 운동을 좋아하는 만큼 몸이 건강하다.